

광주, 국가대표 앞세워 8년만에 도약 전남, 체조 펜싱 검도 약세 순위 하락

전국체전 결산

체육인들의 '가을잔치'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17일 폐막식을 끝으로 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8년 만에 광주가 13위로 한 단계 도약하며 활짝 웃었고, 전남은 충북에 밀려 12위로 내려앉으며 표정이 엇갈렸다.

◇광주

올림픽 스타 양학선(한국체대)이 금빛 작지를 선보였고, 양궁 기보배(광주시청)가 개인전·단체전 우승으로 2관왕에 올랐다.

광주시청 육상팀의 질주가 돋보였다. 한국 육상을 대표하는 남자 허들 110m의 박태경, 단거리의 강자 임희남(100·200m) 그리고 도약종목의 자존심 김덕현(멀리뛰기·세단뛰기)이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광주시청 육상팀은 금7, 은2, 동1개의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다.

해체위기를 맞았던 근대 5종 남자팀도 시와 체육회의 집중관리 속에 종합순위 1위에 오르는 등 2204점을 끌어담으며 순위 싸움에 힘을 보탤었다.

광주대 축구의 '깜짝 돌풍'과 함께 3위 이내 입상 경기 단체가 지난해 2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 등 전통목에 걸친 전반적인 성적 향상이 이뤄졌다.

시체육회 직원 개인별 종목 담당 책임

제 정착에 따른 경기단체와의 소통강화 속에 주최 도시인 대구에 이어 성취상 2위의 성과도 냈다.

◇전남

금 39, 은49, 동58(전년도 금34, 은42, 동58)을 획득한 전남은 지난 대회보다 메달 개수와 득점이 상승했지만 충북의 견제에 밀렸다. 충북이 지난해 무득점에 그쳤던 야구, 테니스, 럭비, 축구에서 4421점을 획득하며 전남과 자리를 바꿨다.

야구, 테니스, 농구, 핸드볼, 펜싱 등에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전남은 체조(도청), 펜싱(해남군청), 검도(무안군청), 유도(여주시청), 육상(여수·광양시청), 사이클(강진군청) 팀의 경기력 약세로 고전했다.

아쉬움 속에서도 수영 양정두(전남수영연맹)가 2개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MVP 경쟁을 벌였다.

점영 50m에서 23초77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신기록을 앞당기며 전남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양정두는 자유형 50m에서 22초52의 한국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체고 선수들도 3개의 대회신기록을 만들었다. 육상 해머던지기 김석일과 원반던지기 한원남 그리고 양궁 50m의 최미선이 대회 신기록을 썼다.

사이클 2관왕 나야름은 사이클 24km 포인트트레이스 4연패를 이뤘고, 도로개인독주에서는 3연패를 달성했다.

수구 남교부에서 대회 2연패를 이룬 전남은 16년 만에 정상에 오른 순천공고의 활약 속에 남교부 럭비 우승도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가 주앙파울로·북이·박기동·김동섭·이승기를 앞세운 '오공축구'로 21일 성남 일화와의 홈경기에서 승리를 노린다. <광주 FC 제공>

광주 '오공축구'로 천마 사냥

공격수 5명 선발투입 ... '1점차' 강등권 탈출 나서

21일 광주서 K리그 36라운드 성남일화와 맞대결

위기의 팀 광주가 마지막 반란을 꿈꾼다. 광주 FC가 21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성남 일화를 상대로 K리그 36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지난 35라운드 상주의 보이콧으로 가권승을 거둔 광주는 A매치 휴식이 동안 목포축구센터에서 전지훈련을 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다잡았다.

새벽 훈련을 프로그램에서 제외한 광주는 오전에는 스트레칭 등 기본훈련을, 오후에는 포지셔널 전술훈련을 실시했다. 저녁 미팅시간에는 그동안의 경기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모니터링하며 자신감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광주는 이번 성남과의 승부를 위해 '오공 축구'를 재가동한다. 광주는 브라질 특급 주앙파울로와 K리그 최장신 북이를 비롯해 박기동, 김동섭, 이승기로 이어지는 화려한 공격진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캡틴 김은선도 성남전을 통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는 상주를 제외한 최하위 한 자리를 놓고 강원과 경쟁을 하고 있다.

광주가 강등권 탈출을 위해 오랜만에 만난 흥편을 앞에서 시원한 승리를 선물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무등기 사회인야구 4강티켓 한판 승부 21일 본랉구장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4주차 경기가 21일 진행됐다.

본랉구장에서 열리는 4주차 경기는 지왕리그 대결로 펼쳐진다. 오전 8시 청연한방병원 풀가이스가 삼지토건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

오전 10시에는 담양애와 세한기업 재규어가 지왕리그 4강 티켓을 놓고 대결을 갖는다.

김종모 전 KIA 코치 한화 이글스 코치로

김용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는 18일 김종모(53)·오대석(52) 코치를 새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광주상고-영남대를 거친 김종모 코치는 프로 출범 첫해인 1982년부터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1992년 은퇴할 때까지 외야수부문 골든글러브를 네 차례나 받았다. 은퇴 후 해태, 삼성에서 코치를 맡았고 KIA에서 수석코치도 지냈다.

대구상고-한양대 출신의 오대석 코치 역시 1982년부터 삼성에서 선수 생활을 한 한국 프로야구 원년 멤버로, 제1호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졌다. 태평양, 현대에서 코치를 지냈고 대구상고·포철공고에서도 지휘봉을 잡았다.

김용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는 18일 김종모(53)·오대석(52) 코치를 새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광주상고-영남대를 거친 김종모 코치는 프로 출범 첫해인 1982년부터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1992년 은퇴할 때까지 외야수부문 골든글러브를 네 차례나 받았다. 은퇴 후 해태, 삼성에서 코치를 맡았고 KIA에서 수석코치도 지냈다.

대구상고-한양대 출신의 오대석 코치 역시 1982년부터 삼성에서 선수 생활을 한 한국 프로야구 원년 멤버로, 제1호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졌다. 태평양, 현대에서 코치를 지냈고 대구상고·포철공고에서도 지휘봉을 잡았다.

김용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는 18일 김종모(53)·오대석(52) 코치를 새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광주상고-영남대를 거친 김종모 코치는 프로 출범 첫해인 1982년부터 해태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1992년 은퇴할 때까지 외야수부문 골든글러브를 네 차례나 받았다. 은퇴 후 해태, 삼성에서 코치를 맡았고 KIA에서 수석코치도 지냈다.

대구상고-한양대 출신의 오대석 코치 역시 1982년부터 삼성에서 선수 생활을 한 한국 프로야구 원년 멤버로, 제1호 사이클링 히트의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졌다. 태평양, 현대에서 코치를 지냈고 대구상고·포철공고에서도 지휘봉을 잡았다.

김창준 생활체육회장 체육상 상금 1000만원 전액 기탁



광주시생활체육회 김창준 회장(사진 오른쪽)이 '제50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 1000만원을 생활체육발전을 위해 전액 기탁했다.

18일 김창준 회장은 "체육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탁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생활체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회장은 시민 1인1종목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최근 대한민국 체육상 진흥상을 수상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염경엽 넥센 감독 모교 광주일고에 톡큰 지원

1000만원 상당 야구용품

넥센의 새 사령탑 염경엽(44)감독이 광주일고에 톡큰 지원을 했다.

염경엽 감독이 최근 "야구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야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교인 광주일고에 10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지원했다.

광주일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염 감독은 1991년 태평양 돌핀스 내야수로 입단한 뒤 10시즌 동안 0.195의 타율과 홈런 5개 110타

점을 기록했다.

선수로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2000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은퇴한 이후 프런트와 수비코치, 스카우트, 운영팀장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특히 스카우트로 활약하며 아마야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한편 올 시즌 주무·작전 코치로 활약한 염 감독은 18일 계약기간 3년에 계약금 2억원, 연봉 2억원 등 총액 8억원에 계약을 맺고, 1대 이광환 감독 2대 김시진 감독에 이어 넥센의 3대 감독으로 취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염경엽 넥센 히어로즈 감독이 18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감독 취임식에서 넥센 히어로즈 모자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몰버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과죽이**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광역시 오만구**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